

# 세계 양돈 산업의 현황 및 수출 전략(Ⅰ)



경남첨단양돈연구소  
도창희 소장

## 1. 세계 양돈 산업 현황과 우리나라 양돈 산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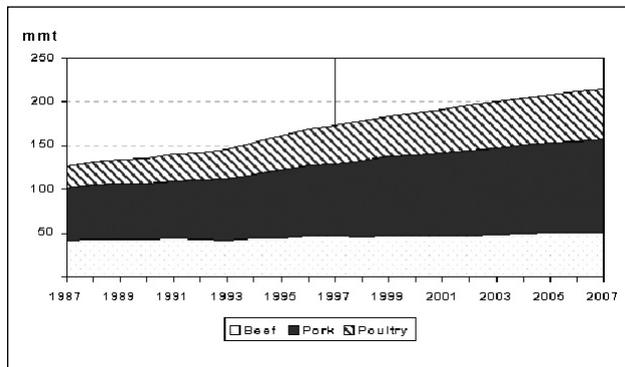
### 1) 세계 돼지고기 생산과 소비

국제 육류 생산량 중에 쇠고기의 생산량은 4~5천만톤에서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 비해 돼지고기는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돼지고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리하여 2007년에는 1억톤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세계 돼지고기 생산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환경 문제와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적은 닭고기와 경쟁으로 인해 80년대보다 증가 속도가 둔해졌다. 돼지고기의 생산량 증가는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평균 2.4%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며 가장 급격하게 증가한 곳은 미국과 아시아 지역이며 다음으로 캐나다 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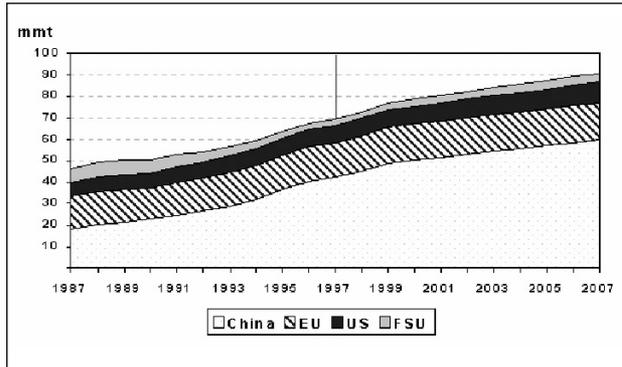
시코 구소련 유럽 등이다. 특히 중국의 생산량 증가가 세계 돈육 생산량을 주도하고 있다.

돼지고기 소비는 선진국 즉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 소비증가율이 낮다. 이는 소득이 일정 수준에 올라 충분한 양의 육류를 섭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과 멕시코 등의 개발도상국에서는 돼지고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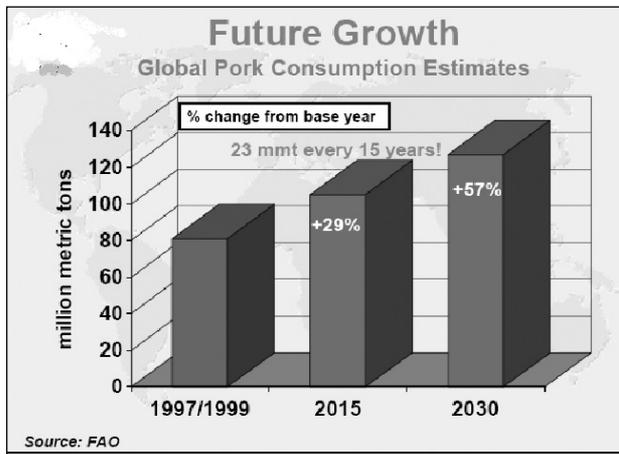
<그림 1> 세계 육류 생산량(FAPRI)



〈그림 2〉 주요나라의 돼지고기 생산량(FAPRI)



〈그림 3〉 향후 세계 돼지고기 소비량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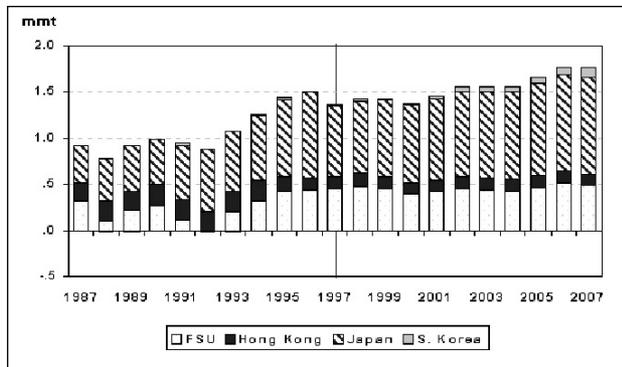


간 3% 이상 소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동부 유럽과 구소련연방에서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경제성장 그리고 저축보다는 국민들의 소비성향으로 어느 정도 돼지고기 수요의 증대가 기대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돼지고기 소비의 증가는 다음 10년 내에 30% 이상 증가할 것이며 중국 국내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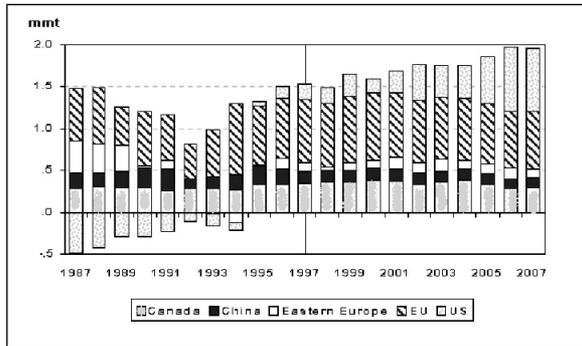
을 41% 증대시킬 것으로 예측되고 세계 돈육생산량 증가분의 74%를 차지할 것이다. 구소련의 돈육 생산은 소규모의 미개발된 구조로서 소련의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 수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의 돈육 수입은 대만 구제역 발병 후 돼지고기 수입이 혼란을 겪은 후 18.4%가 급격히 감소되는 상황을 맞았으나 2002년 돼지고기 수입량이 이미 97년 이전 상태로 돌아왔다. 주요 수입국인 멕시코 일본과 홍콩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의 돈육 거래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다음 10년은 미국의 돈육 시장에 점유율이 높아질 것이다. 미국의 성장을 강건하게 하는 요인은 달러 가치의 하락이 미국 돈육의 경쟁력을 높여주며, 양돈 산업의 구조가 수출 산업의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

〈그림 4〉 주요 돈육 수입국(FAPRI)



〈그림 5〉 주요 돈육 수출국(FAPRI)



다. 미국, 캐나다, 중국, 유럽의 그리고 브라질을 포함하는 주요 수출국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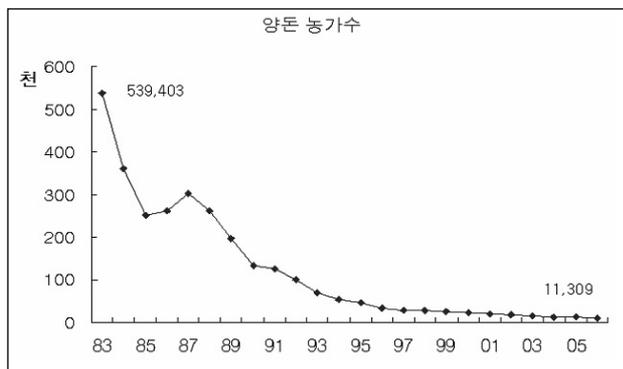
중국은 전통적으로 홍콩과 구소련에 돼지고기의 주요 공급원이었다. 수출은 매년 1%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국내생산량의 증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양이다. 중국의 수출 증대가 비교적 낮은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한다. 첫째 중국 국내 소비자의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기호가 육류로 옮겨감에 따라 국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둘째 중국은 구제역 발생국이라 한국과 일본에 수출할 수 없다. 중국의 수출량 대부분이 홍콩이외의 시장에서는 질 낮은 통조림 제품이므로 세계 주요 돈육시장에서는 경쟁이 될 수 없다. 미국은 낮은 생산비와 높은 생산 효율로 인해 1997년 세계 돈육 수출량의 11.2%를 차지하였으나 2007년에는 34.9%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갈

것이다. 전 세계수출 물량은 2007년에 441만톤으로 추산되며 이중 유럽연합(15국) 전년보다 15만톤 증가한 140만톤을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93만톤, 캐나다 90만톤, 미국은 86만톤을 수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 2) 국내 양돈 산업현황

국내 양돈 산업의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1980년대 50만호 이상의 농가 2007년에는 1만1천 농가만 남아 있게 되었다. 88년 단기간 농가수가 증가하였지만 그 외에는 꾸준히 감소하였다. 모든 산업에서 전문화를 이루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어 구조조정을 통한 전문화를 이루게 되는데 양돈 산업에 있어서는 이 시기에 부업 양돈이 사라지고 전업화가 진행되었다. 양돈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자연스럽게 세대교체가 이루어져 양돈협회의 구성원은 대부분 30대에서 50대의 젊은 사람들이 회원의 주류를 이루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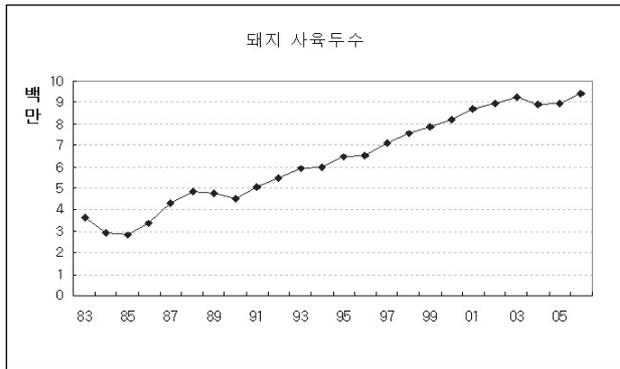
〈그림 6〉 우리나라 양돈 농가 수의 변화(농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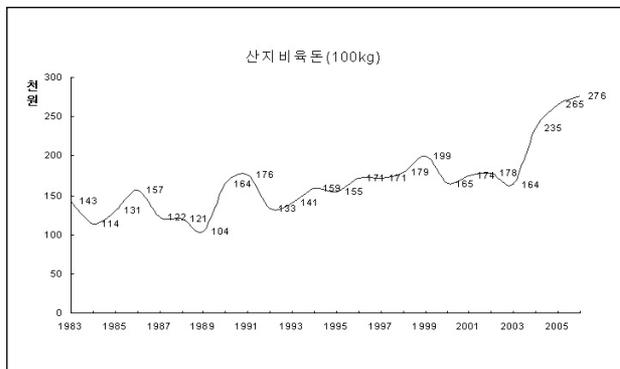
있다.

이러한 농가 수의 급격한 감소가 돼지고기 생산량을 줄여온 것은 아니다. 사육두수가 80년대 300만두의 세배 이상 늘려온 930만 두를 넘어서고 있다. 전업농들은 돼지 사육시설의 현대화와 양돈 기술의 과학화를 동시에 이루고 생산 효율을 높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두수를 사육하게 되었다.

<그림 7> 국내 양돈 사육두수(농림부)



<그림 8> 연도별 산지 돼지 출하가격(농림부)



산지 돼지 가격은 1980년대 10만원대에서 2006년 평균 27만 6천원을 보이고 있다. 1997년 대만의 구제역 발생으로 대만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어 국내돈육이 일본에 수출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지가격도 높게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돼지고기의 일본 수출이 중단되면서 돈가가 2003년까지 떨어졌다가 2003년 12월 미국의 광우병 발병으로 소고기 수입이 중단되면서 전체 소고기 수입량이 크게 줄고 한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쇠고기 수요의 대체 육류로 돼지

고기의 수요가 늘고 가격이 올랐다. 이러한 가격의 등락에도 불구하고 양돈 산업은 최근 30여년간 몇 해를 제외하고 큰 어려움 없이 지속되었다. 2006년 추산 양돈 산업의 매출액은 3조 8000천억으로 추산되어 농업 작목 중 수도작 다음가는 고소득 작목이다. 양돈 산업 전체적으로 볼 때 규모화, 전문화를 이루어지고 생산효율이 높아져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지켜왔다.

그러나 산지의 돼지 가격은 계절적으로 등락이 심하다. 다음의 표는 2004년도 가격을 예로 평균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연중 가격의 백분율을 나타냈다. 보통 어느 해나 10월과 11월 가격이 최대로 떨어지며 5월, 6월과 7월중에 가격이 최대로 올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기간에는 행락철과 맞물려 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반해 전년도 7월, 8월에 중부시킨 돼지들이 태어나서 비육출하되는 기



국내 양돈 산업의 환경은 부업 양돈이 사라지고 전업화가 진행되었다. 전업농들은 돼지 사육시설의 연대화와 양돈 기술의 과학화를 동시에 이루고 생산 효율을 높여 적은 인력으로 많은 두수를 사육하게 되었다.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80.4	91.1	97.0	99.6	107.2	111.1	110.2	112.8	106.0	83.4	91.9	106.8

생으로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2000년도에 1억4천2백17만6천달러

간인데 날씨가 더운 7~8월에는 수태율이 낮아 돼지의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영향한다고 볼 수 있다.

돼지고기의 수출은 국내시장이 완전 개방된 이후에도 90년 4백52만8천두에서 냉장육 수입이 개방된 94년에는 5백95만5천두로 사육두수가 늘어났으며 오히려 일본 돼지고기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97년에는 냉동육까지 완전 개방되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2007년에 9백34만두를 넘어서서 외형적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처럼 양돈 산업은 97년 이후 돼지고기 수출증가에 힘입어 지난 98년 8만8천3백25톤을 수출, 3억1천2백56만6천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였으며 돼지고기 수입량 5만5천6백83톤, 1억4천6백41만1천달러를 제외하고도 1억6천6백15만6천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보였었다. 그러나 98년을 정점으로 99년부터 국내 가격상승으로 인해 수입이 늘어났으며 2000년도에는 구제역 발

의 적자를 보기도 했다. 98년 돼지고기 수출은 당시 전체 농축산물 수출액 13억9천만달러 중 22.4%를 차지할 만큼 수출농축산물중 규모가 가장 큰 규모였다.

이와 같이 돼지고기는 타 농산물에 비교해 일찌감치 수입 개방된 상태에서도 일본이라는 해외시장을 갖고 있어 국제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산업으로 인정, 정부에서도 수출산업으로서 적극 육성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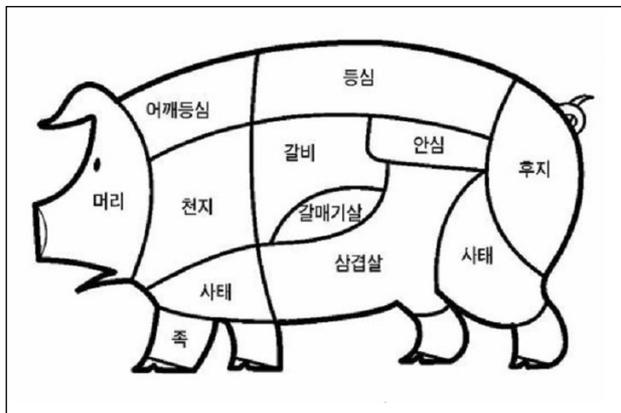
### 3) 국내 돼지고기 소비의 특성

우리나라 국민의 한해 육류 소비량은 국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꾸준히 증가하였다. 그러나 연간 육류 섭취량이 어느 정도 이르자 증가속도는 뚜렷하게 완화되었으며 1999년 30kg을 넘는 이후 다소의 등락은 있으나 32kg과 33.5kg사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이중 돼지고기는 1995년 14kg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에는 17.8kg으로

닭고기(7.58kg), 쇠고기(6.74kg) 비중의 55.4%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 국민들의 돼지고기 선호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국 수입쇠고기의 개방여부에 따라 국민들의 쇠고기 소비량이 영향을 받는다. 소고기의 소비의 증가는 돼지고기 소비에 감소를 초래하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9〉 돼지고기의 주요 부위 명칭



돼지고기의 부위는 10여개 부위로 나누어 지는데 목살은 등에서 목으로 이어지는 부위이며 지방이 적당히 붙어있어 맛이 좋고 구이

용으로 이용하고, 앞다리는 불고기, 찌개, 수육용으로 이용한다. 갈비는 보통 양념 불갈비로 이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삼겹살을 선호하기 때문에 갈비의 부위가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적다. 삼겹살은 구이, 베이컨으로 이용하며, 갈비를 떼어낸 부위부터 복부까지이며, 근육과 지방이 삼겹의 막을 형성하여 맛이 좋다. 뒷다리는 튀김이나 불고기로 이용하는데 지방이 적다. 외국에서는 햄으로 이용가치가 높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등심과 안심은 돈까스용으로 이용되지만 국내보다 외국에서 가치가 높다.

우리 국민들의 돼지고기 소비는 삼겹살에 치중되어 39.8%의 소비를 보이고 갈비가 뒤를 이어 18.7%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목살이 17.3%를 차지하여 3개 부위가 전체 돼지고기 소비의 76%를 차지한다. 그러나 돼지의 3개 부위 고기 생산량은 33.6%에 지나지 않는다. 돼지고기의 부위별 가격도 삼겹살의 수요가 많다보니 가장 높게 형성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등심

과 안심의 가격이 높는데 우리나라와 차별되는 부분이다.<다음호에 계속> 🐷

〈그림 10〉 국내 소비자의 부위별 구입비율과 돼지 마리당 부위별 생산비율(박종수 등)

